

고은 불교대하소설

한 소식의 무리들

양 관으로 보면 사람이 돌아왔다. 그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의 병어리 다섯사람과 나다 일곱사람도 이끌고 왔다. 병어리란 골짜기는 까마귀야 이곳에 왔다 떠나더라도 이곳의 사정을 알릴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다에는 옷과 침구 그리고 무쇠기마술까지 실어왔다. 그는 도중에 목재를 실어가는 대상(隊商)을 만나

부처님에게도 여러 경전을 통해서 무엇 이름이 다 헛된 것을 말씀하셨소...그대가 이름을 가지는 것은 다만 방편일 따름이니 장차 그대의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오."

"나 또한 도리라는 이름은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손바닥일 따름이니 해가 진 뒤에는 작은 그늘을 만들 나위도 못되지요."

아무튼 금강이 돌아온 뒤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암관이나 누란쪽에 나아가 필요한 세간상이나 연장 따위를 구해왔다. 아니 은밀한 신도들도 하나둘 동반해 올 수 있었다. 막고굴은 아득한 옛날의 동진(東晉)시대 이래 위·주·수·당·송·서하·원·명 그리고 청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10대 왕조 이상의 기나긴 세월을 걸쳐 조성된 천불동(千佛洞)인 것이다. 바로 이런 곳이 오랜 폐허로 방치된 것은 오아시스의 고갈과 함께 몇번의 전란 때문이었던가. 그 중에서 회고도가 이곳까지 침입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 뒤로 뜻있는 사람들이 이 폐허를 단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다가 청나라 초기 이래로 그런 사람들도 영영 맥을 잇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도리 일행이 다시 막고굴의 폐허를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본디 전 무렵은 도리로부터 이곳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숨겨둔 아홉이 기를 얻은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도리로서는 무렵에게 종교적인 귀의를 목적으로 막고굴의 장엄한 비말을 말했던 것인데 무렵은 그런 귀의 따위보다 장차 막고굴을 도움으로 삼아 한 나라의

그래서 합두는 그런 도리를 "진리는 노래와 함께 읊는다"라는 멋진 말로 찬미하였다. 이미 전생의 합두가 처녀시절 불우한 그녀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듯 슬픈 노래로 자위한 바 있고 입춘의 후산인 불이와의 각별한 관계도 그런 시와 음악의 인연을 길게한 바 있었다. 그런 사람인자라 도리의 그 음악적인 여운이 담긴 한 마디 한 마디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천년에 걸쳐 그려진 막고굴 각굴의 벽화에서도 그 벽화를 정성껏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벽화의 여러 번상(變相)에서 내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천년내내 들리는 소리 공양함에 틀림없으리라.

낮추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경동의 아사도 불이를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아사는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두 사람과는 달리 몇개의 커다란 실내에 오랫동안 소집되어 있는 경전들을 이따금 살펴보았다. 다른 두사람이야 글자와는 인연이 없는 문맹자이므로 그들의 신 수행에는 어떤 문자가 끼여들 여지 없이 순수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문자를 벗어난 직관에 길들여진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말과 문자 이외에도 5판(五言)에 의한 수많은 명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사만이 그 장경들을 지키는 사람답게

"옛 부처를 만나 새 부처를 이룩해야 한다"
불이는 '왕오천축국전'의 감동을 음미하며 혜초의 외침을 다시 들었다

이런 글안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모래바람이 폭풍으로 불어닥쳐도 괴괴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곳이라면 만화 불이 합두의 복대 굴도 그렇거니와 도리의 남대굴의 그 경건하기 짝이 없는 수행의 실내는 오로지 정신만으로 확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불이가 도리와 우애를 맺피우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서 침묵이 함께하고 있었다. "회주(회주)도리는 어느새 이곳에서 회주(會主)라고 부른다"께서는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에 오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경승(經乘)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의 천상계에 도리의 공부가 담겨있다는

문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거기에는 한 자 경전 뿐 아니라 범어나 팔리어 그밖의 서역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한문으로 된 작은 필사본 한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정에는 아주 앞장한 글씨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라고 써여있었다. 아사는 그것을 불이가 들었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보여주었다. "음..." "어떤 사람이 천축을 다녀온 것을 기록한 것이로군." 그는 이것을 지은 사람이 신라국 혜초(慧超)임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다. 그 안



75

은(銀)을 주고 목재도 끌고 오게 하였다. 본디 죽은 전 무렵의 심복이었던 것을 도리가 알아 그의 충직한 제자로 삼은 것이었다. 성도 이름도 없는 옛 구자국(龜茲國) 종족의 젊은이인데 보통사람 서너를 당할 수 있는 장사이기도 하였다. 도리는 그에게 범명(法名) '금강(金剛)'을 주었다. 이름하면 금강역사(金剛力士)를 뜻하는 이름이었다. 금강역사란 고대인도의 신화에 등장하는 역사인데 코끼리 60만마리의 힘을 가진 역사이며 어떤 거지도 허용할 수 없게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눈을 금강안(金剛眼)이라 한다. "금강!"

이라고 부르자 그때야 처음으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금강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것이었다. 도리어 스승 도리가 그런 금강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옛날 공자는 이름을 내세웠고 노자는 이름을 물리쳤지요. 우리 스승 석가모니

황건주가 되려는 생각에 달아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무렵은 끝내 불운으로 세상을 하직하였고 도리가 그대신 이곳의 도량을 개척하게 된 것이다. 도리는 남대굴에서 금강과 그밖의 제자들을 데리고 시간을 정하여 명상과 앞으로의 막고굴 대증을 이끌어갈 구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한 그는 만화 불이 합두들의 복대굴 이외의 각 굴안을 순시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격려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이곳에는 2천5백좌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이바로 2천5백여 대웅이 한 사람이 한 부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곳이 다시 한번 크게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때를 위한 겨 자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매우 음악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침중이다. 비상비비상천이야 너무나 정신 자체 뿐이어서 차라리 어떤 공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회상(會上)에 하하하이다. 어떤 물질의 티끌도 따라붙지 않은 그런 허공으로서의 정신이 그것이다. **사** 실인즉 이런 불이의 침중은 침중만이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이 실상인 줄의 모든 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맑았다. 어떤 경우 도리는 오로지 가는지 모르게 오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 도리를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형제도 그림자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이 실상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제17굴 정경동(靜經洞)의 사람 야사(夜舍)가 합두로 내뱉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불이는 도리에 이어 이곳에서 그 지도력을 은근히 발휘하고 있었다. 그 지도력이란 다른 아님 정신의 사멸이기도 하였다. 이제 만화조자도 불이에게 그 자신을

에 사연이 밝혀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바깥의 환한 빛을 쏘여 자세히 읽기 시작하였다. "음..." 그에게서 연방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혜초는 10대의 소년승으로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왔다. 답답한 세상에서 가슴이 활짝 열리는 세상으로 간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당나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날마다 "더 멀리 가야한다!"라고 외쳐댔다. "부처님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나로부터 몇마리 먼 곳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존재인지 모른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한다. 불비나 동산도 사위국도 왕사성도... 그 이름뿐인 먼곳으로 가서 나는 옛 부처를 만나 새 부처를 이룩해야 한다"라고도 외쳤다. 그런 나머지 당나라 사람들이 그를 미친 녀석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참지 않고 서역의 고향에 나섰다. 불이는 혜초의 그 무서운 감동을 자아

내서 기록의 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에게 보여준 일도 잊어버리기 바라고 길이 보관해 두오." 그는 굴 밖의 3층 노대를 내려와 절벽의 굴 아래에 있는 드넓은 땅으로 내려왔다. 모래와 진흙으로 다져진 곳이었다. 더러 풀 포기도 들어나 있었다. "여기에 온 것은 축복이다!" 그는 오후의 명상을 그만 두고 내내 여가지기를 펴며 왕오천축국전이 준 감동을 음미하고 있었다. 해가 잔 뒤에도 오래 동안 어둠이 없었다. 누구나 오후불식(午後不食)이므로 밥을 먹을 시간이 그에게만 필요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있었다. 그 기쁨이란 진리를 만난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정수리가 권 돌리는 것처럼 텅빈 기쁨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이같은 색다른 기쁨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것

은 이제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한 소식을 얻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막고굴의 다른 사람들도 마음 속에 홀연히 출렁거리는 것 같은 기이한 체험에 예외적이고 있었던 것이다. 도리 회주도 굴 아래의 땅으로 내려왔다. 그가 큰 소리로 노래하였다. 그 노래가 절벽에 닿아 매리로 여기저기에 부딪쳐 갔다. 백억 터럭 끝에 사자가 나타나 백억 터럭 끝에 사자가 외친다 (百億毛頭獅子現 百億毛頭獅子吼)

이 노래 뒤에 도리는 미친듯이 자꾸 웃음을 흘렸다. 누군가가 달려도 달려지지 않는 웃음소리가겠지만 누구 하나 그 웃음소리를 말리지 않았다.

그림·조향숙

막고굴 일행은 '정수리가 평 돌리는 듯한 텅빈 기쁨'을 체험했다

분양
안전한 투자
(국가공인기관관리)
동대문외곽권전망가 8500萬투자
1년후 2~3배
- 은행대출3천만원 -
보사보장 첫집에서 (33千月)90萬제임보장 (02)264-2512
담당: 가장 최경민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교육내용: 척추 및 각 관절 교정법
· 복·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운동부상치료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흉상요추 척추 치료법
·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입구명역 543-7306

보리수
취급 품목: 각종수입향, 염주, 일제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서울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법파
주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106번지
사찰명: 대원사
주 지: 숙명: 김세명
법명: 영우
귀 중단의 중지와 중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주지 김 세 명 합장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싱글
전화 (053) 742-7855
051-717-7792
011-532-8454
(주) 신 화 개 발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화재예방용)
■ 木材활활방지제(갈라짐 방지)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목공 수질/목재)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충주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포교당 운영하실 분
수원 도심속에 포교당을 운영하고 싶으시나 포교자 좋은 기회가 있어 외국에 나가게 되니 급히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45명: 5년간 운영 (비용은 상담부 없음)
전화 (0331) 41-4315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 위치: 동대문구 상암4동
· 법당: 50명, 시설 일체 완비
· 연락처: (02) 245-0904
· 비용: 보종금 3000만원, 시설 일체 2000만원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탁자, 달집, 범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품목: 탁자, 달집, 범상, 문짝, 불교조각
대진(전승)공예사
전화: 011-282-4609
팩스: 02-248-4609
0348-571-9538
02-210-1401
012-210-1401
趙貞玉 합장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2년2회 실시 4월·8월
회원모집중 결성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신영희(72세, 할머니) · 박·고득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 송과정(5개월)
이성수(39세, 직장인) · 박·고·대영(36개월)
특징: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수) '비디오파킹' (17454)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배설급 제공
- 최경민 (남, 27세) 도입 -
대한국립평가기원
상당전화 (비밀보장) (02)766-9090 (저녁 9:00까지 접수)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